

불교와 성

- 수행의 영역인가, 행복의 영역인가 -

허남결*

- I. 문제의 제기
- II. 성적 비행의 정의와 쟁점
- III. 경전의 ‘성’ 관련 언급 검토
- IV. 불교와 성의 관계:사구분별(四句分別)의 적용
- V. 맺음말:성은 수행의 영역인가, 행복의 영역인가

■ 한글요약

“출가수행의 상징은 독신주의다.” 붓다는 깨달음의 길에 가장 큰 장애가 성욕(性慾)이라고 가르쳤다. 성은 무섭고 위험한 본능인가 하면 동시에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불교의 성이 수행의 영역으로만 제한되는 것도 행복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할 시대가 되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불교의 사부대중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아우르는 폭넓은 공동체 개념이다. 성이 금지되는 독신 출가자가 있는가 하면, 성이 허용되는 미, 기혼 재가자도 있다. 더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권리의 관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당연히 그들도 사부대중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는 말이다. 지금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이 강조되는 행복주의의 시대다. 출가자의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식으로든 승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성을 ‘수행’의 영역으로 보고 통제하는 승가와 성을 ‘행복’의 영역으로 보고 허용하는 재가의 솔직한 대화가 요청된다. 성은 막기만 해서도 안 되고 풀기만 해서도 안 되는 영원한 도덕적 딜레마다. 이제 성은 출, 재가자를 막론하고 ‘수행이나 도덕’의 영역에서 ‘행복과 권리의 영역’으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종교는 과거의 가르침이자 현재의 반영이며 더 나아가 미래의 나침반이 될 때 비로소 고유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 식을 던지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주제어 ● 깨달음, 성욕, 수행의 영역, 권리와 선택, 행복의 영역, 도덕적 딜레마

I. 문제의 제기

불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삭발염의한 출가자의 청정무구한 독신주의(celibate monasticism)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불교의 ‘성 윤리’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따분하고 지루한 주제라는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는 불교가 “성에 부정적인 종교(a sex-negative religion)”¹⁾라는 일부 학자들의 평가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와는 별도로 불교의 역사문화에서 성(sexuality)을 둘러싼 복잡다기한 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푸코(Michel Foucault)는 빅토리아 시대의 성문화를 예로 들면서 금욕적인 성의 교육과 강조가

1) Langenberg(2018), 567.

반드시 개인의 도덕적인 성생활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 인간들은 금지나 억압된 성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출구를 끊임없이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는 성이 살아 있는 생명체의 원초적 본능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빨리 율장에는 바라이죄에 저촉되는 출가자들의 성적 위반 혹은 패배(pārājika)의 사례가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표현과 묘사가 너무 적나라해서 어떤 경우에는 마치 외설적인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가능한 온갖 종류의 성행위가 한꺼번에 열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유·무형의 인간 형상과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기발한 방법의 각종 자위행위와 심지어 수간(獸姦)과 시간(屍姦)에 대한 언급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성행위 과정에서 단계별로 변화하는 당사자의 내밀한 심리상태도 조목조목 점검해서 바라이죄의 충족 여부를 따졌다.³⁾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언제나 독신 수행 공동체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탄트라불교의 제의(祭儀)들은 성적 욕망의 종교적 고양이자 해소 수단이었던 지적을 받기도 한다.⁴⁾ 란젠버그(Langenberg)는 불교의 성 윤리가 예외 없는 적용을 받는 도덕적 의무이기에 앞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의 ‘인격적 성숙(personal thriving)’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성을 ‘불교의 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더욱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의 부제인 ‘수행의 영역인가, 행복의 영역인가’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의 흔적일지도 모르겠다.

붓다의 가르침은 2,500여 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르마

2) 같은 논문, 같은 페이지에서 재인용.

3) 전재성(2020), 1328-1619.

4) Numrich(2009), 62-73. Langenberg(2015), 276-286.

5) Langenberg(2018), 568.

의 수레가 지나간 지역의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여 한층 더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만큼 불교가 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태도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동안 교단의 스승들과 수행자들은 서로 다른 많은 방식으로 성을 사유했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행동으로 옮겼다.⁶⁾ 불교에서도 성의 문제를 수행이나 계율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권리의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키온(Keown)은 “성 윤리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좀 더 주의 깊게 생각되어야 할 점도 많다.”⁷⁾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불교가 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고민을 요청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달라이 라마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⁸⁾ 이어지는 논의는 이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논자의 시각을 정리해 본 것이다.

II. 성적 비행의 정의와 쟁점

초기 불교에서 ‘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은 글자 그대로 “성적 욕망에 있어서 그릇된 행동(kāmesu micchācāra)”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오계 가운데 세 번째인 불사음계(不邪淫戒)가 금지하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성적인 금기(taboo)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었다.⁹⁾ 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그는 성적 비행, 즉 샷된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

6) angenberg(2015), 278.

7) Keown(2005), 68. 다미엔 키온, 허남결 역(2007), 100-101.

8) 같은 책, 같은 쪽.

9) Ven. Pandita(2019), 151-152.

그는 샷된 음행을 한다.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오빠가 보호하고, 언니가 보호하고, 친지들이 보호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남편이 있고, 몽둥이로 보호하고, 심지어(혼약의 징표로) 화환을 두른 그러한 여인들과 성 행위를 한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몸으로(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들이다.¹⁰⁾

이 가운데 앞의 다섯 여성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여성들이며, 뒤의 네 여성은 각각 동료 신자들의 보호를 받는 여성(수행자), 이미 결혼했거나 태어났을 때 혹은 어릴 때 남편이라고 약속한 여성(기혼녀와 정혼녀),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¹¹⁾ 여성(접근금지 여성), 약혼의 징표로 남성의 화환을 받아 목에 두른 여성(약혼자가 있는 여성) 등이다. 여기서 보듯이 성적 비행의 주체는 항상 남성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성적 비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¹²⁾ 남성의 성적 비행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으므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여성 또한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다만 언어의 습관상 남성을 행위 주체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붓다고사(Buddhaghosa)는 성적 비행에서 남성과 여성의 책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주석을 내놓고 있어 흥미롭다.¹³⁾

판디따 스님(Ven. Pandita)은 붓다고사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적 비행의 당사자가 된 두 남녀의 도덕적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대로 인용해 보는 것도 사안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10) 대림스님(2007), 448-44; 대림스님(2012a), 278.

11) 대림스님(2007), 449, 각주) 270. 대림스님(2012a), 278, 각주) 236. “이러이러한 여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몽둥이(danda)로 이만큼의 벌을 준다.’라고 마을이나 집이나 길에다 형벌을 알린 그런 여인들을 ‘몽둥이로 보호하는(여인들)’이라고 한다.”

12) Ven. Pandita(2019), 152-153.

13) Ven. Pandita(2019), 153-154.

1. 만일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거나 혹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특정한 남성에게 자신의 성을 맡겨둔 여성이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a)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에게 금지된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다른 남성들은 그녀에게 금지된 대상들이다.
 - (b)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 이외의 어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그녀와 그 남성 두 사람 모두 성적 비행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2. 만일 그녀가 미혼이지만 자신의 성을 부모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a) 그녀는 자신의 보호자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모든 남성들에게 금지된 대상이다. 그러나 어떠한 남성도 그녀에게 금지된 대상은 아니다.
 - (b)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신의 보호자들의 허락 없이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그녀의 파트너는 성적 비행의 죄를 범하게 되겠지만 그녀는 아무 죄가 없는 상태(그대로)로 남는다.¹⁴⁾

이와 같은 해석이 실제로 붓다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붓다고사의 주석에 동의한다면 성적 비행에서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불교 성 윤리의 입장은 대략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기혼여성은 남편에게 충실할 필요가 있지만, 미혼여성은 도덕적 죄책감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¹⁵⁾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혼란스러운 메시지, 즉 남성들은 낙담하게 만들고 미혼여성들은 보호자가 우려하는 일과 상관없이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낸다. 기혼여성의 성적 비행에는 남녀 모두의 쌍무적인 책임이 따르지만, 미혼여성의 성적 비행에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남성의 일방적인 책임만 묻는 독특한 논리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붓다가 미혼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무기(無記)로 대

14) Ven. Pandita(2019), 154.

15) Ven. Pandita(2019), 155.

변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혜로운 붓다가 이런 중의적(重義的)인 메시지를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붓다는 남성의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상대방인 여성의 성적 비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는 있겠다. 이는 현실적으로 남성이 성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붓다는 어쩌면 세심한 페미니스트이자 휴머니스트였다는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성들의 성적 금기가 되었을 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성의 선택과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붓다는 여성들을 자상하게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불교 윤리에서 성적 비행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강간(rape)과 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을 어떻게 구분했는가일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미세한 차이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빠디따 스님의 설명을 계속 인용해 보기로 한다. 그의 깔끔한 개념 정리는 이 논문의 요지를 드러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1. 한 남성이 자신에게 성적으로 금기의 대상인 어떤 여성과 서로 동의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강간이 아니라 성적 비행이다.
2. 한 남성이 자신에게 성적으로 금기의 대상인 어떤 여성을 강간한다면, 이것은 성적 비행일 뿐만 아니라 강간이기도 하다.
3. 한 남성이 자신에게 성적으로 금기의 대상이 아닌 어떤 여성(예컨대,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는 것)을 강간한다면, 이것은 단지 강간일 뿐 성적 비행은 아니다.¹⁶⁾

여기서 우리는 반대의 경우, 즉 여성에 의하거나 같은 남성에 의한 남성

16) Ven. Pandita(2019), 158.

강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남성들은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든 간에 성적으로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획(scheme)에 이르게 될 것이다.

1.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서로 동의한 성관계를 갖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강간도 아니고 성적 비행도 아니다.
2. 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어떤 여성에게 강간을 당한다면¹⁷⁾,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불충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성적 비행뿐만 아니라 강간도 범하게 된다.
3.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 의해, 자신의 아내에 의해, 혹은 부모 등과 같은 보호자가 있는 미혼 여성에 의해 강간을 당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단지 강간일 뿐 성적 비행은 아니다.¹⁸⁾

이처럼 만일 세 번째 계인 불사음계가 강간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간을 오계의 기획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뻘디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강간은 두 번째 계인 불투도계가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의 범주 안에 들 것이다. 왜냐하면 빨리어에서 도둑질을 가리키는 개념인 ‘adinnādāna’는 글자의 의미 그대로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강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이처럼 만일 강간이 일종의 도둑질로 여겨진다면 성적 비행도 같은 종류의 행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성적 비행이 다른 남성의 아내를 훔치거나 다른 부부의 딸 등을 훔치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17) 남성 강간은 여성 강간의 경우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성은 신체적으로 월등한 남성이 주도한다는 선입견도 이제 불식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힘센 여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지적해 두기로 한다.

18) Ven. Pandita(2019), 158-159.

19) Ven. Pandita(2019), 159.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계의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말하자면 세 번째 계인 불사음계가 두 번째 계인 불투도계(不偷盜戒)에 흡수, 통합되어 결과적으로 오계는 사계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의미다. 뻘디따 스님은 이 대목에서도 탁견을 제시한다. 성적 비행은 도둑질과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초기 불교 윤리에서는 상호동의로 이루어진 거래, 즉 “주어진 것을 취하는 것(dinnādāna)”²⁰⁾은 도둑질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성적 비행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불투도계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두 사람은 불투도계가 아니라 금지의 대상인 이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불사음계를 어긴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유혹한 어느 한쪽이 불사음계를 어기는 반면, 그 또는 그녀가 금지의 대상인 줄 몰랐던 상대방은 불사음계를 묻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계목과 달리 불사음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설령 불투도계를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와 보호자들, 즉 제3자(a third party)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물건을 도둑맞은 상실감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의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 뻘디따 스님의 독특한 관점은 초기 불교 윤리를 결과주의적(consequentialist)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적 공간을 열어준다. 이는 이기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현대인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윤리학적 감각을 발휘하고 있다. 결국 불투도계와 불사음계는 오계의 구성요소로서 각각 제 몫을 충분히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사계가 아니라 오계의 구속을 받는 출, 재기불자들임을 항상 자각할 필요가 있겠다.

20) 같은 책, 같은 페이지.

Ⅲ. 경전의 ‘성’ 관련 언급 검토

(1) 수행자의 경우

소속공동체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처벌은 예나 지금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범죄이다. 세속의 사형제도가 대표적이다. 승단 추방 죄에 해당하는 바라이(pārājika)는 수행자에게 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의 도덕적 ‘패배(defeat)’뿐만 아니라 승단으로부터의 ‘추방(expulsion)’²¹⁾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성적 교섭에 참여한 수행승은 어쨌든 패배한 자이며, 그는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다.”²²⁾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곧 그와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²³⁾ 율장과 경전에서는 출가자의 성적 비행과 관련된 언급들이 자세하게 나온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행과 깨달음의 길에서 결정적인 방해물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욕망을 잘 다스려서 율장에 기술된 특정한 행동을 범하지 않도록 몸(身)과 입(口)과 마음(意)을 끊임없이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가자의 이런 청정한 행동을 가리켜 통상 ‘범행(brahmacarya, 梵行)’²⁴⁾이라고 부른다. 종교적으로 순결한 학생 정도의 의미겠다.

알려져 있듯이 율장에는 성적 행동의 위반 수준에 따라 승단 추방죄 법인 ‘바라이(Pārājika)’, 승단 잔류 죄 법인 ‘승잔(Saṅghādisesa), 부정 죄 법인 ‘이부정(Aniyata)’, 상실 속죄 죄 법인 ‘니살기바일제(Nissaggiya)’, 단

21) 빠알리어 ‘pārājika’는 어원상 ‘패배’를 의미하는 ‘parā-√ji’와 ‘추방’을 의미하는 ‘parā-√aj’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의미를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성(2020), 1295.

22) Langenberg(2018), 574; Numrich(2009), 65에서 재인용. 바라이죄에 따르는 일정한 후렴구다.

23) 전재성(2020), 1358.

24) Langenberg(2018), 568.

순 속죄 죄 법인 ‘바일제(Pācittiya)’²⁵⁾ 등의 단계별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성적 교섭(sexual intercourse)’에 대한 『율장』의 정의를 살펴본 다음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다.

‘성적 교섭’은 부정한 짓, 비속한 짓, 저열한 짓, 추악한 짓, 밑물하는 짓, 은밀한 짓, 짝짓기가 있는데, 그것이 성적 교섭이다. ‘행한다.’라는 것은 성적 특징을 성적 특징에, 성기를 성기에 서로 **깨알만큼이라도**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행하는 것이다. ‘축생과 함께 조차도’라는 것은 축생의 여성과 함께 조차 성적 교섭을 하면, 그는 수행자가 아닌 것이고, 싸끼야의 아들이 아닌 것인데, 하물며 인간의 여인과는 말해 무엇하겠는가.(중략) ‘세 가지 여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여성, 비인간의 여성²⁶⁾, 축생의 여성을 뜻한다. ‘세 가지 양성(양성구유자)’이란 것은 인간의 양성, 비인간의 양성, 축생의 양성을 뜻한다. ‘세 가지 뺨다까’²⁷⁾라는 것은 인간의 뺨다까, 비인간의 뺨다까, 축생의 뺨다까를 뜻한다. ‘세 가지 남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남성, 비인간의 남성, 축생의 남성을 뜻한다.²⁸⁾

이처럼 수행자가 성적 교섭을 하면 바라이죄를 짓게 되는 대상들에는 ‘인간의 여성, 비인간의 여성, 축생의 여성; 인간의 양성, 비인간의 양성, 축생의 양성; 인간의 뺨다까, 비인간의 뺨다까, 축생의 뺨다까; 인간의 남성, 비인간의 남성, 축생의 남성’ 등 12가지 형상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섹스, 즉 (인간, 비인간, 축생) 여성과의

25) 전재성(2020), 1293-1305.

26) 비인간(amanussa)에는 신, 야차, 나찰, 다나바, 건달바, 긴나라, 마호라가 등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영령들(spirits)로 볼 수 있다. 전재성(2020), 1358의 각주 3327 참조.

27) 뺨다까(pandakas)는 양성구유자와 비슷한 유형의 인간으로 보기도 하지만, 츠빌링(Zwilling)은 “우리가 영어에서 허약하거나 무기력한 남성(반대의 여성도 포함)에 대해 말할 때 ‘불알 없는 놈’이라고 하듯이 비유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중성적인 남성 혹은 여성을 가리켰던 개념으로 보인다. Harvey(2000), 413-414. 피터 하비, 허남결 역(2014), 754-755.

28) 전재성(2020), 1358.

섹스, (인간, 비인간, 축생) 양성과의 섹스, (인간, 비인간, 축생) 뻘다까와의 섹스, (인간, 비인간, 축생) 남성과의 섹스를 발견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종류의 섹스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율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역사적 사건과 도덕적인 요청이 미래의 예방조치라는, 율장 조항으로 정립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계속하여 성적 교섭의 방식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다.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²⁹⁾ 하지만 전적으로 공상의 산물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공동체 내부의 규율을 다시 확립할 필요에서 포함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쉰딘나(Sudinna) 비구의 에피소드와 암원승이를 유혹하여 성적 교섭을 맺은 수행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³⁰⁾ 두 가지 사례에서는 특히 행위자의 성적 의도(cetanā)가 쟁점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유사한 사건을 경계하기 위한 세부 조항들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다소 길게 인용된 다음의 언급들은 불교가 출가자의 성 윤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었는가를 그야말로 조목조목 보여준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승가 공동체 안에서도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연인 ‘성’은 인위의 ‘도덕’과 충돌하는 가운데 조금씩 사회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율장』의 계율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인간의(비인간의, 축생의) 여성과 세 가지 방식, 즉 향문과 성기와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의(비인간의, 축생의) 양성과의 세 가지 방식, 즉 향문과 성기와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29) Langenberg(2018), 574; Numrich(2009), 66. 율장의 성적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재성(2020), 1297의 설명을 참조할 것.

30) 전재성(2020), 1328-1358에는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및 붓다의 입장 제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Langenberg(2018), 574-578; Numrich(2009), 64-65에도 관련 언급이 보인다.

인간의(비인간의, 축생의) 뺨다끼와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한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의(축생의, 비인간의) 남성과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한다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중략)³¹⁾

이어서 가능한 경우의 상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바라이죄에 해당하는 성적 교섭의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행위 과정에서 느끼는 각 단계의 즐거움을 바라이죄의 적용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의 ①, ②, ③, ④ 가운데 어느 하나의 즐거움이라도 느꼈다면 바라이죄를 범하게 되며, 네 가지 즐거움을 모두 느끼지 않았다면 바라이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죽어서 거의 무너진 어떤 대상과의 섹스는 바라이죄 대신 추악죄, 즉 투란죄³²⁾를 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이것은 성적 끌림의 반복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³³⁾ 여기서 우리는 『율장』의 진술이 치밀하게 분석적이고, 철저하게 논리적임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일부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인간의 여성을 수행승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항문에(성기에,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① 적용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② 삽입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③ 유지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④ 인발(사정)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낀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깨어있는 인간의 여성을 수행승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항문에(성기에,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①

31) 전재성(2020), 1358-1360.

32) 전재성(2020), 45. 추악죄(醜惡罪)는 바라이죄와 승잔죄를 범하려다가 미수로 끝난 죄를 말하는데, 빨리어로는 ‘뿔랏짜야(thullaccaya)’, 한역으로는 음사하여 투란차(偷蘭遮) 또는 투란죄라고 불렀다.

33) Numrich(2009), 67.

적용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② 삽입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③ 유지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④ 인발(사정)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잠든 인간의 여성을 수행승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항문에(성기에,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① 적용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② 삽입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③ 유지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④인 발(사정)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술취한 인간의 여성을 수행승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항문에(성기에,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① 적용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② 삽입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③ 유지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④ 인발(사정)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정신착란된 인간의 여성을 수행승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항문에(성기에,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① 적용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② 삽입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③ 유지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④ 인발(사정)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방일한 인간의 여성을 수행승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항문에(성기에,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① 적용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② 삽입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③ 유지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④ 인발(사정)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다음엔 죽은 시신의 부패 정도에 따른 죄의 경중을 묻는 언급이 나온다. 각각의 단계마다 행위대상만 다를 뿐 형식과 내용 및 결론은 그대로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각각 ‘비인간, 축생, 인간의 양성, 비인간의 양성, 축생의 양성, 인간의 뺨다까, 비인간의 뺨다까, 축생의 뺨다까, 인간의 남성, 비인간의 남성, 축생의 남성’을 데리고 와서 또한 각각 ‘깨어있는, 잠든, 술 취한, 정신착란된, 방일한, 죽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

은, 죽었지만 대체로 무너지지 않은, 죽어서 거의 무너진' 상태의 대상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은 위에서 인용한 문장 형식에서 주어가 '수행자의 적대자들'을 포함하여 '적대자의 왕들', '적대자의 도적들', '적대자인 건달들', '적대자인 깡단들' 등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중간에 “그녀는 유격(santhatāya, 有隔)이고 수행승은 무격(asanthatassa, 無隔)³⁴⁾이고, 그녀는 무격이고 수행승은 유격이고, 그녀도 유격이고 수행승도 유격이고, 그녀도 무격이고 수행승도 무격이고 간에”³⁵⁾라는 문구가 더 들어간다. 그 외의 다른 것, 즉 성적 교섭의 대상과 방법 및 처벌의 적용은 똑같다. 예컨대, 다른 대상과의 성적 교섭은 바라이죄가 되지만 ‘죽어서 거의 무너진’ 것을 대상으로 삼는 성적 교섭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라이죄가 아니라 투란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적 교섭의 행위 주체가 남성 수행자, 즉 비구인 경우만 살펴보았다. 여성 수행자인 비구니와 관련된 성적 교섭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³⁶⁾ 상대적으로 ‘자위(masturbation, 自慰)’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정도만 지적해 두겠다. 문헌에는 다양한 자위 방법과 자위 기구가 등장한다. 대체로 그와 같은 위반은 바라이죄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시적이고 가벼운 성적 욕망은 참회와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본능은 때때로 종교의 율타리를 벗어난다. 이러한 접근은 승단의 질서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 욕망의 비교적 안전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도 있다.³⁷⁾ 그

34) 유격은 ‘성기를 감싼 것’을 뜻하고, 무격은 ‘성기를 드러낸 것’을 뜻한다. 전재성(2020), 1505, 각주) 3329.

35) 전재성(2020), 1505-1606.

36) 붓다교사의 『청정도론』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대립스님(2004), 126-216.

37) Langenberg(2018), 576-578; Numrich(2009), 67-68. 전재성(2020), 2541-2939에는 비구니의 성적 교섭과 관련된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

것은 무엇보다도 임신의 가능성과 무관한(antinatalism)³⁸⁾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처방이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율장의 가르침을 지범개차(持犯開遮)의 행위원리로 재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다. 그것은 윤리신학에서 말하는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와도 유사하다.

(2) 재가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불교는 성과 출산을 전제하는 세속의 삶보다 금욕에 바탕을 둔 출가 수행자의 삶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해왔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붓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비구들이! 두 종류의 행복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속가의 삶이 주는 행복과 출가의 삶이 주는 행복이 그것이다. 두 가지 중에서 출가의 삶이 주는 행복이 월등하게 더 낫다.”³⁹⁾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비구와 비구니의 성 윤리에 관한 규정들은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으나 재가자의 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불교는 처음부터 출가자와 재가자의 성 윤리를 두 가지 트랙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하비(2020)는 불교가 종교의 특성상 “독신의 사원 생활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또한 독신자의 삶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혼과 가정생활이 매우 적합하고, 수많은 가치 있는 성질들이 길러지는 영역”⁴⁰⁾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가자의 성 윤리에 대한 경전의 관심은 출가자의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선생경(善生經)』 혹은 『육방예경(六方禮經)』으로 알려진 『싱갈로와다 슛따(Singālovāda Sutta)』에는 재가자의 기본적인 성 윤리가 언급

38) Langenberg(2018), 571-573.

39) Numrich(2009), 68에서 재인용.

40) Harvey(2020), 103; 허남결(2014), 200-201.

되고 있다.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로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겨야 한다. 존중하고, 알보지 않고, 바람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사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긴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바람피우지 않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로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다시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서쪽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⁴¹⁾

아소카(Asoka) 대왕과 붓다고사는 『싱갈로와다 숫따』를 가리켜 “제가 자들의 율장 즉, 수행 규정(code of discipline)”⁴²⁾이라고 기술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었다.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성의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아내는 다시 남편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상응하는 의무를 다하는, 평등한 관계다. 라훌라(Rahula) 스님의 표현을 빌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거의 종교적이거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가정 생활(sadāra-Brahmacariya)’으로 불린다.”⁴³⁾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 외의 어떤 다른 사람과도 성적 교섭을 갖지 않는 세속적 의미의 범행을 지킨다. 『율장』이 수행자의 삶을 청정한 것으로 만든다면 『싱갈로와다 숫따』는 결혼 생활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면 “함께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⁴⁾ 이런 인식

41) 각목스님(2006), 327-328.

42) Harvey(2020), 97; 허남결(2014), 192.

43) Numrich(2009), 69에서 재인용.

44) 같은 논문, 같은 쪽에서 재인용.

의 연장선상에서 재가자의 성 윤리는 오계의 불사음계가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가자의 이런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열반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거리두기는 불교의 변함 없는 근본 입장임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사음계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는 성적 욕망(愛慾)에 있어서 그릇된 행동을 삼가는 계법을 수지한다.”⁴⁵⁾이다. 계의 자발적 수지(受持)는 그것의 자율적 실천(實踐)을 함축(含蓄)한다. 성적 비행의 판단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재가자가 피해야 할 불사음계의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의 「업품(業品)」을 참고할 만하다.

만약(올바른) 때와(올바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자가 아니거나 처녀 혹은 남의 아내를 자기에게 속하게(성관계를) 한다면, 이를 사음이라고 한다. (중략) 만약 축생이나, 계를 파한 자나, 승(僧)에 속하거나, 욕에 간헐거나, 도망하는 자이거나, 스승의 부인이거나, 출가한 사람이거나 간에 이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음을 범했다고 한다. (중략) 만약 혼자나 다른 사람과 함께 길옆이나 탑 옆이나 사당 옆이나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범행이 아닌 짓을 하면 사음죄를 얻는다. 만약 부모, 형제, 국왕이 지키고 보호하거나, 혹은 먼저 남과 더불어 약속을 했거나, 먼저 남에게 허락했거나, 먼저 재물을 받았거나, 먼저 부탁을 받았거나,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형상 및 죽은 시체로서 이러한 사람들의 옆에서 범행이 아닌 짓을 하면 사음죄를 얻는다. 만약 자신에게 속한 것(아내)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남의 아내)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사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음에도 역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으니, 무거운 번뇌를 따라 중죄를 얻고, 가벼운 번뇌를 따라 가벼운 죄를 얻는다.⁴⁶⁾

45) “Kāmesu micchācārā veramanī sikkhāpadam samādiyāmi.”, Numrich(2009), 69에서 재인용함.

46) 『大正新修大藏經』, Vol. 24, No. 1488. 「優婆塞戒經」, “若於非時非處非女處女他婦. 若屬自身是名邪婬.(中略) 若畜生若破壞. 若屬僧若繫獄. 若亡逃若師婦. 若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이 붓다고사의 『아비달마구사론』과 캄포파의 『해탈보장론』에도 기술되어 있다. 불사음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적 비행들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불교의 윤리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질서의 확립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새겨들을 부분이 많다. 여전히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 자신도 몸가짐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다음의 행위는 금지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 금지되는 여성, 즉 다른 사람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딸, 혹은 자신의 아버지 쪽 친척이나 어머니 쪽 친척과의 성행위
2. 자신의 아내와 금지된 부위(손, 구강, 항문 등)를 통한 성행위
3.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성행위, 즉 노출된 곳, 사찰 경내나 숲속에서의 성행위
4. 적절하지 않은 때, 즉 아내가 임신했을 때, 수유 중일 때, 혹은 아내가 수행하는 동안의 성행위⁴⁷⁾

- 『아비달마구사론』 -

1. 부적절한 신체 부위, 예컨대, ‘입이나 항문을 통한’ 성행위
2. 부적절한 장소, 예컨대 스승의 수행처 주변, 사원, 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의 성행위
3. 부적절한 때, 예컨대, ‘여성이 수행 중이거나 임신 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혹은 ‘대낮 동안’의 성행위

出家人近如是人。名爲邪婬。(中略)若自若他。在於道邊塔邊祠邊大會之處。作非梵行得邪婬罪。若爲父母兄弟國王之所守護。或先與他期。或先許他。或先受財。或先受請。木涅畫像及以死尸。如是人邊作非梵行。得邪婬罪。若屬自身而作他想。屬他之人而作自想。亦名邪婬。如是邪婬亦有輕重。從重煩惱則得重罪。從輕煩惱則得輕罪”。 번역은 담무참, 석법안 역(2017), 200-201을 참고, 수정함.

47) Keown(2005), 60; 허남결(2007), 90에서 재인용. 흥미롭게도 『디가 니까야』에는 사가족의 조상이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남매간의 결혼을 허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근친상간에 거부감이 없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각목스님(2006a), 『암밭타 경』, 282-284.

4. 너무 잦은, 예컨대 ‘연속 5회 이상의’ 성행위
5. 통상 부적절한 방식, 예컨대 강압에 의하거나 (같은) 남성과의 성행위⁴⁸⁾

- 『해탈보장론』 -

지극히 상식적이어서 별도의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성적 비행의 사례들이다. 이처럼 불교의 성은 일상의 관습이나 도덕을 존중하고 그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수준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거기에는 여성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다시피 신부와 수녀들도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독신 성직자들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건강한 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성은 종교의 것이기 이전에 바로 인간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평신도들의 사회의식이 높은 것은 이런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 불교도 인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비혼주의자가 많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가 수행자의 독신생활이 언제까지나 도덕적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우리가 살펴본 『율장』에서의 성도 언뜻 보면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으로만 보이나 사실은 승가의 삶이 위협받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고려한 공동체적 장치이기도 했다.⁴⁹⁾ 성적 교섭에서 비롯되는 임신과 출산, 위생과 안전 등은 수행자의 삶과 직결되는 최우선적인 관심사였을 것이 분명하다. 자위나 동성 간의 신체적 접촉이 조심스럽지만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기록들은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⁰⁾ 그것은

48) Keown(2005), 60; 허남결(2007), 90에서 재인용.

49) Langenberg(2018), 567-591;

50) 동성애에 대한 불교적 입장은 하비(2020)의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인상적이다.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에서 일반인들 사이의 동성애 행위는 간혹 부도덕한 것으로 비난받았지만,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덤덤한 관용의 태도가 존재했었다. 중국에서는 좀 더 관대했고, 일본에서는 적극 옹호했다.” Harvey(2020), 411-434; 허남결(2014), 749-790; Keown(2005), 61-68; 허남결(2007), 91-101 등. 이종철 역주(2015), 『근품(根品)』도 참조

무엇보다도 임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행위였기 때문일 것이다.

IV. 불교와 성의 관계:사구분별(四句分別)의 적용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는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촉, 경험, 수용하는 가운데 전개, 변화,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성’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정리하면 불교는 성을 반드시 ‘부정적(negative)’으로만 보지는 않았던 종교라는 말이다. 이런 관점은 청정 독신 수행을 표방하는 불교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불교의 ‘성’도 과거의 것에만 머물 수 없으며, 현재와 미래의 ‘성’으로도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서구의 일부 국가들에서 불자 동성애 단체들이 많이 결성되고 있는 현상은 이런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에서도 불자들이 스스로 발언권을 가지려고 할 때 비로소 불교가 어제의 담론이 아니라 오늘과 함께 내일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은 역사적으로 정치·사회·문화적 경험의 산물이다. 불교의 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자연스럽게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침 불교와 성의 관계를 ‘사구분별(四句分別, catuṣkoti)’의 형식을 빌려 분석하고 있는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해 보기로 한다.⁵¹⁾ 서구에서는 그리스어 ‘tetralemma’로 번역되는 사구분별은 네 가지 논리적 가능성, 즉 “~이다(有); ~아니다(無); ~이

할 것. 최근에 발표된 Artinger(2021), 294-338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51) Langenberg(2015), 276-286. 이 장의 내용은 그의 논문을 요약하고 알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亦有亦無); ~이지도 않고~아니지도 않다(非有非無)”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위대한 불교 철학자인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가 즐겨 사용했던 논증 방식이기도 하다.

(1) 불교는 성에 부정적이다.

불교의 전통은 인간의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해왔다. 근본적인 이유는 불교가 성적 욕망을 깨달음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욕정은 탐·진·치 가운데 하나로 고통을 낳는 원인이다. 윤회의 연료일 뿐이었다. 붓다에 의하면 욕망(taṇhā)은 살갓을 태우는 불꽃과도 같다. 그것은 삶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성은 욕망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따라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썩든나 비구도 대를 잇기 위한 가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불사음계를 어겼다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붓다는 썩든나에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히려 맹독을 지닌 독사뱀의 아가리에 그대의 성기를 집어넣을지언정, 결코 여인의 성기에 집어넣지 말라. 어리석은 자여, 오히려 검은 뱀의 아가리에 그대의 성기를 집어넣을지언정, 결코 여인의 성기에 집어넣지 말라. 어리석은 자여, 오히려 뜨겁고 불타고 작열하는 숯불화로에 그대의 성기를 집어넣을지언정, 결코 여인의 성기에 집어넣지말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리석은 자여, 그것을 인연으로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⁵²⁾

붓다가 성적 욕망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가르침이다. 여기서 우리는 섹스를 인간이 경험하는 모

52) 전재성(2020), 1339-1340.

든 고통의 제일원인으로 보고 있는 불교의 성 윤리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붓다의 비유도 끔찍할 정도로 자극적이다. 하지만 성적 욕망은 인간의 여러 가지 열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욕망의 부정은 심지어 깨달음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붓다가 널리 자비를 베풀겠다는 욕망을 품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적 욕망도 고유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열린 사회적 공간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앞에서 봤듯이 빨리 율장은 성적 비행과 관련된 바라이죄를 범한 비구와 비구니들이 승가 공동체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티베트에서 사용되던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 Mūlasarvāstivāda)와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던 법장부(法藏部, Dharmaguptaka)와 같은 다른 율장 전통들에서는 바라이죄를 지은 비구와 비구니가 계속 승가에 머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 두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승단 내 지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한두 단계씩 강등되었겠지만 말이다. 독신 수행의 전통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자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했지만, 『율장』의 제정자들은 인간의 성적 욕구가 갖는 복잡성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함께 이를 기꺼이 검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늘 략게도 성적 일탈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서하기도 했다.⁵³⁾ 결론은 불교가 ‘성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맥락을 가진 불교와 성의 관계도 다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

(2) 불교는 성에 긍정적이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열반

53) Langenberg(2015), 276-279.

(nirvāṇa)’ 혹은 해탈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욕망의 불이 ‘꺼진 (extinguished)’ 상태다. 이는 붓다의 깨달음을 종종 열이 식어서 가라앉은 상태인 ‘cool’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붓다 개인의 성적 이미지는 상상 이상으로 ‘hot’했다. 붓다의 페니스는 수말이나 황소 또는 숫코끼리처럼 평소에는 칼집에 꽂혀 있다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다른 남성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굵기와 크기를 과시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붓다의 페니스 자체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조복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⁵⁴⁾ 그는 섹시한 몸과 이글거리는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인기 절정의 연예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당대의 섹스 심볼(sex symbol)이었다. 붓다와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 거기에 모인 여성 청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출중한 외모와 훌륭한 인품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맛지마 니까야』의 「짱끼경」에는 붓다의 외모를 찬탄하는 언급이 나온다. “존자들이여, 사문 고타마께서는 수려하고 멋지고 환하며 최상의 외모를 갖추고 기품있는 아름다움과 당당한 위세를 가졌으며 친견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⁵⁵⁾ 이와 함께 붓다와 그 제자들의 금욕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인 인상을 심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서 동시에 우러나오는 아우라야말로 최고의 성적 매력이자 가장 완벽한 즐거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승불교의 자비로운 보살 이미지도 붓다와 제자들의 실제 이미지와 겹치는 극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못생긴 불상이나 보살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성들에게는 멋진 남성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고 남성들에게는 멋진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불상과 보살상들은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마디로 불교는 붓다와

54) Langenberg(2018), 579-583.

55) 대림스님(2012b), 477.

그 제자들의 남성성(masculinity)을 매우 긍정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들은 “남자다웠고, 힘이 넘쳤으며, 성적으로 끌리는”⁵⁶⁾ 상남자들(puruṣottama)이었다. 붓다는 지혜를 구체화한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남성성을 갖춘 전사계급(kṣatriya)이기도 했다. 그는 말 그대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puruṣarṣabha)였으며, 그를 보는 여성들을 거의 기절하도록(caused women to faint) 만들어 마침내 그의 제자가 되도록 했다. 파워스(Powers)는 고대의 인도 경전들에서 전혀 다른 버전의 붓다를 발견하고 한동안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⁵⁷⁾ 대승불교의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을 성적인 도구로 삼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기록들도 많다.⁵⁸⁾ 이외에도 탄트라 불교에서 성을 깨달음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하는 태도 등도 불교가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⁹⁾ 이 과정에서 남성은 무사정(non-ejaculation)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는 초기 불교윤리에서 출산을 금지한 독신 수행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도 한다.⁶⁰⁾

(3) 불교는 성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다.

청정과 오염, 욕망과 독신 등의 이분법을 부정하는 섹스 요가와 탄트라

56) Langenberg(2018), 579.

57) Langenberg(2018), 579에서 재인용.

58) Upāyakaūśalya-sūtra, Śūraṅgamasamādhi-sūtra, Vimalakīrti-sūtra, Bodhisattvabhūmi 등.

59)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네팔과 티베트 및 일본에서는 가족을 거느리면서 수행하는 소규모 승가 공동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불교가 성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도 있었던 만큼 이를 빌미로 불교가 청정 독신 수행의 전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결론은 성급한 일이 될 것으로 본다. Langenberg(2015), 279-281.

60) Langenberg(2018), 582-583.

는 불교의 성에 대한 악명 높은 사례 가운데 하나다. 불교의 수행에 성을 끌어들이므로써 탄트리즘은 욕망을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으로 복권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을 부정하는 기존의 불교에 좌절된 사람들이 탄트리즘에서 위안을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탄트라불교 신자가 실제로 성에 긍정적일까? 탄트리즘은 인간의 정신적 잠재력과 이성간의 섹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점에서 확실히 ‘성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에 부정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탄트라의 섹스 요가는 섹스를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어쩌다가 한번(욕망을) 뿌리 뽑는 방식으로 섹스를 하려고 할 뿐이다. 불교의 출가주의가 갖는 역동성에 관심이 있는 인도-티베트 탄트라의 권위 있는 스승들은 청정 비구들이 성적인 액체보다는 종교적 대용물을 사용해서 제의를 진행하고 나아가 실물 파트너보다는 모형 파트너와 함께 섹스 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몇 년 전 뉴욕에서 열렸던 대규모 탄트라 의식에서는 규정된 정액과 월경 피 대신에 요구르트와 빨간색 계토티가 대용물로 등장하기도 했다. 탄트라 의식의 성적 관련성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할 것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탄트라 의식의 상징성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반드시 성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섹스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초기의 탄트라 수행자는 성행위 자체보다는 성적 분비물을 수거하는데 더 중요성을 부여했다. 후기 인도-티베트 탄트라의 복잡한 섹스 요가에서 생물학적인 반응인 섹스 리듬은 의도적인 방해와 좌절을 겪어야 했다. 두 사람이 섹스 행위에만 몰입할 수 없도록 종교적인 제의를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탄트라 수행자들의 섹스는 심리적이고 제의적 상징의 맥락을 갖는 고도의 인공적 이벤트인데, 때로는 상대방 인간과의 신체적 접촉마저 차단해버렸다. 인도-티베트 탄트리즘은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성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성의 특정한 체

위와 경험 그리고 목적은 상당히 좁게 구획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구속을 하기도 하고 제한을 받기도 한다.⁶¹⁾ 그런 점에서 탄트리즘은 성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성에 긍정적이기도 했다.

(4) 불교는 성에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오랫동안 불교는 모든 젠더가 이원론적인 것도 아니며, 모든 성이 규범과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는, 새로운 성의 개념과 싸워야 했다. 이제 ‘제3의 성(trtīyāprakṛti)’을 가진 개인들과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우리는 인도·불교 경전 안에서 성적 으로나 해부학적으로 기존의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언급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성적이지 않거나 어느 한쪽의 젠더가 아닌 ‘퀴어(queer)’ 정체성들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격성의 소유자들로 대우받는다. 이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무성애자, 성-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 간-성애자, 성전환자라는 범주들은 주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양자 모두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형성한다.

현재 미국 불교에서는 성 소수자와 다르마 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각자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는 많은 성 소수자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성 소수자들은 무아 또는 공성의 교의와 성 소수자 정체성의 유동성 또는 중간성(in-betweenness) 사이에는 특별한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을 가리켜 ‘다르마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기술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게이나 성 소수자의 의식은 이원론적인 사고에 도전하고 이를 비-이원론적인 의식으로 대체하며 나아가 사람들 간의 동의로 구성된 현실을 뒤집

61) Langenberg(2015), 281-283.

어엿는다.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진술하는 목적이다.”⁶²⁾ 이와 같은 성 소수자 불교는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찢어놓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체성의 핵심인 젠더와 성의 중요성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불교의 자원을 사용해서 젠더와 성을 비-이원론적인 포스트모던의 개념으로 수정하려는 교학적 접근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 공동체 속의 성 소수자 불교는 ‘불교가 성에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라는 명제를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것은 불교의 교의가 성을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에서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식들을 제안한다. 연기법과 공성의 가르침은 성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물이라는 전제를 폭넓게 비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들에 의해 이성애적 도덕 규범은 해체되고 있다. 성 소수자 단체의 지도자들은 동성 간의 결혼식에 주례를 선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성적 관심사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다. 남의 일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성애자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성 소수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성에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으며, 동성애적인 것도 아니고 탈규범적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더욱 절박한 종교적 관심사는 이것과는 다른 방향, 즉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그리고 다른 성 소수자 사이에 깨달음의 자격요건이 결코 다를 수 없다고 본다.

비유하면 ‘불교’는 완전히 정착한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장소, 시간, 경전, 언어,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공유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형성, 변화, 발전해 온 살아있는 사물이기도 하다.⁶³⁾ 불교의 ‘성’도 그런 과정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실로 다양한 빛깔과 향기를 품게 되었다고 본다. 부정적이기

62) Langenberg(2015), 283-284.

63) Langenberg(2015), 285.

도 했고, 긍정적이기도 했으며,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했으며, 부정적이기도 않고 긍정적이지 않기도 했다. 그러므로 불교와 성의 관계는 위의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선부른 성격규정을 피해야 하는 이유다.

V. 맺음말: 성은 수행의 영역인가, 행복의 영역인가?

성은 옛날처럼 엄격한 계율이나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점차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자신의 개인적 행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불교에서도 성의 욕망을 깨달음의 방해물이 아니라 행복의 동반자로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출, 재가자의 성 윤리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교회와 성당에서는 성과 결혼에 대한 담론이 일상적이지만 사찰에서는 감히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어딜 가나 비슷비슷한 산사 음악회는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

성은 금욕과 방종의 경계선을 위협하게 넘나들며 우리의 도덕성과 수행력을 시시각각 범거량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출가자가 율장의 ‘지배’를 받는다면, 재가자는 오계의 ‘관리’를 받는다. 지배와 관리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다만 성은 출, 재가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생의 화두가 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재가자는 재가자대로 나름의 본능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성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도덕적인가? 각자의 준비된 답변이 있을 것이다. 판단은 오직 그(녀)의 몫이다.

승가 공동체 안에서도 성은 언제나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 많은 율장의

조항들이 오롯이 가정적 차원의 고려일 수는 없다.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율장이 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출가자도 성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다만 바라이죄와 함께 다른 하위법도 존재했다는 사실은 성적 비행과 관련된 수행자들의 구제를 염두에 둔 조치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승단에서 추방된 수행자에 관한 이야기는 『율장』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붓다는 깨달음의 길에 가장 큰 장애가 성적 욕망이라고 가르쳤다. 그만큼 성은 무섭고 위험한 본능인가 하면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불교의 성이 수행의 영역으로만 제한되는 것도 행복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할 세상이 되었음을 자각했으면 좋겠다. 사부대중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회집단 개념이다. 성이 금지되는 독신 출가자가 있는가 하면, 성이 허용되는 미, 기혼 재가자도 있다. 더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권리의 관점에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당연히 그들도 사부대중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이 강조되는 행복주의의 시대다. 출가자의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식으로든 승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출가자의 성도 재가자의 성 못지않게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불교가 성을 수행의 걸림돌로만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21세기의 위대한 종교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을 ‘수행’의 영역으로 보고 통제하는 승가와 성을 ‘행복’의 영역으로 보고 허용하는 재가의 솔직한 대화가 요청된다. 성은 막기만 해서도 안 되고 풀기만 해서도 안 되는 영원한 도덕적 딜레마다. 그런 만큼 승가와 재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 성은 출, 재가자를 막론하고 ‘수행이나 도덕’의 영역에서 ‘행복과 권리의 영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말로 결론을 대신한다. 아울러 서구에서는 불교의 성이 억압의 대상이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많은 연구 결과물이 쏟아지고 있음도 부연해 두겠다.

<참고문헌>

- 각목스님(2006a), 『디다니까야(1)』, 울산: 초기 불전연구원.
- 각목스님(2006b), 『디다니까야(3)』, 울산: 초기 불전연구원.
- 담무참, 석법안 역(2017), 『우바새계경』, 서울: 도서출판 안심.
- 대림스님(2007), 『앙곳따라니까야(6)』, 울산: 초기 불전연구원.
- 대림스님(2012a), 『맛지마니까야(2)』, 울산: 초기 불전연구원.
- 대림스님(2012b), 『맛지마니까야(3)』, 울산: 초기 불전연구원.
- 대림스님(2004), 『청정도론』, 울산: 초기 불전연구원.
- 다미엔 키온, 허남결 역(2007), 『불교 응용 윤리학 입문』,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 이종철 역주(2015), 『구사론-계품·근품·파아품』, 경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전재성 역주(2020), 『비냐야빠따까』,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피터 하비, 허남결 역(2014), 『불교윤리학 입문-토대, 가치와 쟁점』, 서울: 씨아이알.
- Artinger, Brenna Grace(2021), “On Pāli *Vinaya* Conceptionsof Sex and Precedents for TransgenderOrdination”, *Journal of Buddhist Ethics*, Volume. 28.
- Harvey, Peter(2000),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Foundations, Values and Issu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enberg, Amy Paris(2015), “Sex and Sexuality in Buddhism: A Tetralemma”, *Religion Compass* 9/9.
- Langenberg, Amy Paris(2018), “Buddhism and Sexuality”, *Cozort, Daniel& Shields, James Mark eds. The Oxford Handbook of Buddhist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 Keown, Damien(2005), *Buddhist Ethic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Numrich, Paul David(2009), “The Problem with Sex According to Buddhism”,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 48. no.1.
- Ven. Pandita(2019), “Sexual Misconduct in Early Buddhist Ethics: A New Approach”, *Journal of Buddhist Ethics*, Volume 26.

■ Abstract

Buddhism and Sexuality

- Is it the Realm of Practice or the Realm of Happiness?

Heo, Nam Kyol

“The symbol of Buddhist practice (出家修行) is celibacy.” The Buddha taught that the greatest obstacle on the path to enlightenment is sexual desire. To that extent, sexual desire is a scary and dangerous instinct,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gift from nature that anyone can use for their own happiness. We need to be aware that the time has come when we need to be on the lookout for both sexuality in Buddhism that is limited only to the realm of training and to be dismissed only as the realm of happiness. The Four Sections of Buddhists (四部大衆) are a broad community concept that encompass Buddhist Monks and Lay Buddhists. There are celibate Buddhist Monks where sex is prohibited, while there are the married or unmarried Lay Buddhists, where sex is allowed. Moreover, it is a global trend that homosexuality and third sex should be recognized in terms of rights. Of course, they too have no choice but to be included in the general Buddhists. Now is the era of Eudemonism, where individual rights and choices are emphasized. Typically, people are cautious discussing Buddhist Monk sexuality,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winds of change are blowing in the Buddhist world in some way. An honest conversation between Sangha (僧伽), who sees and controls sexuality as the realm of

‘practice’, and “lay devotee,” (在家) who views and allows sex as the realm of ‘happiness’ is requested. Sexuality is an eternal moral dilemma that cannot only be prevented or allowed without restrictions. Now,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sexuality is beginning to be recognized by all Buddhist practitioners from the realm of ‘practices or morals’ to ‘the realm of happiness and rights’. This study replaces the conclusion by raising the question that only when Religion is a teaching of the past, a reflection of the present, and a compass for the future, it will be able to maintain its own vitality.

Keywords ● Enlightenment, Sexual Desire, The Realm Of Practice, Rights And Choices, The Realm Of Happiness, Moral Dilemma

■ 논문투고일 : 2022. 5. 30 ■ 심사완료일 : 2022. 6. 13 ■ 게재확정일 : 2022. 6. 15